

“너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기독교 박해로 남은 교회 ‘단 한 곳’



알제리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면서, 현재 교회는 단 한 곳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 정부는 06-03 명령을 통해 종교 공동체를 박해하고 있다. 이 명령은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무슬림의 개종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알제리의 가톨릭 신자들은 대다수 외국인으로, 공개적인 신앙 실천이 크게 제한된다. 전도를 시도할 경우 기소되거나 추방될 위험이 있으며, 알제리 출신 기독교인들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금 모금이 제한되며, 가톨릭 자선 단체인 카리타스 알제리(Caritas Algeria)가 2022년에 폐쇄된 이후 자선 활동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19년에 여러 개의 대형 복음주의 교회를 폐쇄했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알제리 수도에 있는 교회 한 곳만이 남아 있다. 또한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족, 이웃,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회적 박해를 겪고 있다.

친척들은 특히 여성 개종자들이 기독교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를 막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개종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경우 가정 내 폭력이나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립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위협이 더욱 커지며, 많은 기독교인들은 2024년에도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알제리로 이주한 기독교인들은 성공회, 루터교, 개혁교회, 콥트 정교회 등 다양한 교단에 속해 있다. 또한, 알제리 정부는 형법 144조에서 신성모독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06-03 명령은 종교적 관습과 예배를 제한하고 있다. 이 명령의 제11조는 전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슬림을 개종시키려는 의도로 유혹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의 제작 및 배포도 범죄로 간주되어 1년에서 3년의 징역형과 10만-30만 디나르(약 100만-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카빌리아 지역의 한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여러 교회 관계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독교 사역자 예르나텐은 알제리 정부의 관료적 허가 절차에 대해 비판하며, 최근 몇 년간 이슬람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예르나텐은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으며, 기독교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예수님이 제공하는 사랑과 삶의 기회, 자유를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디모데전서 6:11-12)

하나님,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법과 규제로 종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알제리 위정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정부가 수많은 교회를 폐쇄하여도 주께서 세우신 예수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비밀리에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주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선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이 알제리 전역에 전해져 많은 이들이 주를 따르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남수단, 홍수로 89만 명 피해...24만 명 대피

내전 중인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홍수로 약 89만 3,000명이 피해를 봤다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이날 성명에서 남수단의 78개 카운티 중 42개 카운티와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지역인 아비에이 지역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에 직면했으며 24만 1,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WB)의 지난 1일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불안과 경제 침체, 지속적인 분쟁과 질병, 인접국 수단 내전의 여파로 이미 심각한 남수단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최근 홍수로 더욱 악화됐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이사야 40:28-29)

하나님, 내전과 질병, 기근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 남수단에 홍수까지 덮쳐 수십만 명이 피해를 본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지역과 이재민들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전쟁의 무자비함과 가난에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남수단에 선포하사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흥왕케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 스코틀랜드, 새로운 낙태법 시행...가정에서 하는 기도도 범죄화 될 수 있어

스코틀랜드에서 새로운 낙태 법안인 '2024년 낙태 서비스법'이 시행되면서, 특정 구역 내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범죄화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2일 전했다. 이 법안은 낙태 클리닉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안전 접근 구역'을 설정해 그 구역 내에서 "직원이나 환자에게 괴롭힘, 불안, 또는 고통을 초래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이에 예든버러 주민들은 이 새로운 법에 대해 경고하는 편지를 받았으며,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법이 자신들의 신앙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침묵 속의 기도나 종교적 설교와 같은 행위도 의도적이거나 부주의하게 행해질 경우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받았다. 법을 옹호하는 측은 안전 접근 구역이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행동을 범죄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반대자들은 기도 행위조차도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잠언 15:29,31)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경계를 듣지 않고 하늘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이자 능력인 기도의 권세를 법으로 막아서는 스코틀랜드와 사탄의 간계를 꾸짖어 주소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복음을 거스르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교훈을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영국 성도들이 이 일로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소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깨어 간구하는 예수교회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르메니아·아제르 평화협정 임박...이달 내 서명 준비**



지난해 영토분쟁 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온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협정 서명 단계에 거의 도달했다고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파시냔 총리는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옛 소련권 국가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달 내 양국이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시냔 총리는 “최근 몇 개월간 양국은 조약 초안의 약 80%에 합의했다”며 “이미 합의된 부분에 서명하고 나머지 문제는 향후 작업을 계속하는 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차피 협정으로 양국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측면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남은 사안들은 새 협정을 또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시냔 총리에 따르면 양국 협정에는 현재 상태에서 상대 영토의 완전성을 인식하고 향후 추가 영토 요구를 하지 않으며 무력 사용 및 위협 행위 금지, 상호 내정 불간섭, 조약 이행 메커니즘 마련 등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30년간 영토분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핵심 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승기를 잡은 뒤 양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땅이지만 아르메니아계 분리주의 세력이 점유했던 곳이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이 작년 9월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분리주의 세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아르메니아는 힘을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한 채 평화협정에 응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 지역의 아르메니아계 주민 12만 명 가운데 10만여 명 이상이 아르메니아로 넘어갔다.

양국은 유럽연합(EU)과 러시아 등의 중재 하에 남은 아르메니아계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되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부터는 아르메니아가 점유했던 일부 국경 마을을 아제르바이잔에 넘기기로 하는 등 영토 경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해 왔다(출처: 연합뉴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시편 4:6-8)

하나님, 오랜 영토 문제로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두 나라에 평화협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국 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협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권세자들의 선한 양심과 정직한 영을 일깨워 주십시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주께 있음을 아는 주의 몸 된 교회가 여호와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원함과 탐욕이 멈춰지고 불의의 계획에서 돌이켜 주를 따르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전 세계 무국적자 440만 명

유엔난민기구(UNHCR)는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에 440만 명에 이른다고 10일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유엔난민 기구는 2014년부터 진행된 무국적자 문제 해결 캠페인 ‘아이빌롱(#IBelong)’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소개했다. 국적이 없어 기본권을 못 누리는 무국적자가 2023년 440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30만 명 정도가 난민이라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의 탄압으로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60만 명의 로힝야족을 비롯해 옛 유고연방의 집시, 시리아 쿠르드족 등은 국적이 없어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돼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10년간 최소 22개 국가가 자국 내 무국적자 문제를 종식하겠다는 행동 계획을 채택했고 실제로 50만 명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주목할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 보호 담당 책임자인 루벤 메닉디엘라는 “100여 개국 정부 대표단과 약 50개의 정부 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가 모여 무국적자 문제를 논의한다”며 “무국적자 문제 종식을 위한 글로벌 연합체를 새로 출범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사를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이사야 40:26)

하나님,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여 유리방황하는 전 세계에 440만 명에 이르는 무국적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삶을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헤아리고 부르시는 크고 능력이 강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소서. 몸 된 교회를 통해 더욱 진리를 밝히 보이사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함께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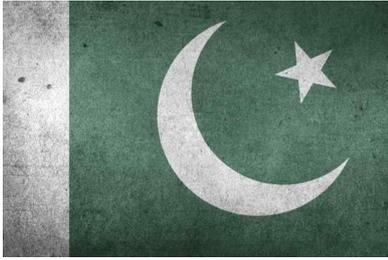
▲ AI가 기독교인 탄압 감시·도구로 이용돼

인공지능(AI)이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감시하는 박해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스티븐 슈넥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위원장은 9일, 영국 프리미어크리스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이란 등 권위주의 정권이 AI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신앙인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국 공산당원이 AI 기술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을 감시할 수 있고, 이전에 불가능했던 수준의 추적과 억압을 가능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슈넥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할 메커니즘을 개발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린도전서 15:57-58)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박해하려는 사탄의 간계는 날로 간교해져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발달 된 기술을 교회에 대한 감시와 억압의 도구로 이용하는 권위주의 정권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주님,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사랑 안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예수교회로 일어나 열방의 주의 영광 나타내 주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너희를 견고케 하시리라”
무슬림 의사의 차별...기독교인 치료 거부



파키스탄의 한 무슬림 의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인의 치료를 거부했다고 미션네트워크가 최근 전했다. 요사프 마시 길(Yousaf Masih Gill)은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파키스탄 편자브의 사히왈 시빌 병원(Civil Hospital of Sahiwal)에 입원시키고 담당 의사를 배정받았다.

그 의사는 길에게 “당신이 기독교인인 줄 알았으면 당신의 아버지를 만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길의 아버지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했다. 길과 가족들은 담당 의사를 찾아 병원 내 의사실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의사와 다른 의사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길은 아버지를 진찰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의사는 게임 중이라며 “나중에 진찰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그 의사는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중요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가족에게 말했고, 이에 길의 형제인 바부 나딤(Babu Nadeem), 가톨릭 교리교사는 수십 명과 함께 병원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나딤은 아버지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시빌 병원의 의사들은 그저 편견과 경멸로 응답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돌봐야 하는 의사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했다.

나딤은 “우리는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수술은 보류 중이다.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부당한 의사들의 행동에 맞서자고 요청한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 이후, 병원의 의료 책임자는 가족을 찾아와 그들이 받은 대우에 대해 사과했고, 아버지가 필요로 했던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길과 나딤의 아버지가 받은 대우는 특히 편자브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지난달에 유럽 연합(EU)에서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특사가 파키스탄을 방문해 편자브 지역의 종교적 관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이 종종 겪는 차별과 박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종종 2등 시민으로 취급받으며, 그들을 고용주에게 속박시키는 억압적인 직업에서 오랜 시간 일하도록 강요받는다. 무슬림들은 또한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파키스탄의 엄격한 신성모독 법을 그들에게 무기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격의 대상이 된 기독교인들은 사형 선고를 받거나 분노한 군중에게 살해되기도 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베드로전서 5:11)

하나님,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기독교인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며 편견과 경멸로 환자를 차별해 의사로서의 윤리적 책임마저 저버린 무슬림 의사들의 악행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들이 겪는 환난이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파키스탄 성도들을 여호와와의 선한 손에 위탁드립니다. 주께서 교회와 함께하사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교회의 참된 터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레바논, 피란민 급증으로 공립학교 60% 대피시설 활용

이스라엘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교전이 벌어지는 레바논에서 최근 피란민이 급증하자 공립학교 60%가 대피시설로 활용되고 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유엔 인도적지원조정실(OCHA)의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대피시설로 몸을 피한 레바논 주민은 3주 만에 18만 6,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피소 1,023곳으로 몰려들었고 822곳은 이미 수용 한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레바논 남·동부와 수도 베이루트 남쪽 교외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 2,169명, 부상 1만 212명 등 인명 피해가 났다. 인도적지원조정실은 “계속되는 공습으로 교육시설이 파괴되는 사태도 빈발한다”며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레바논 공립학교의 최소 60%가 현재 피란민 대피소로 사용되는 실정이며 어린이 30만 명 이상이 공교육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이사야 43:11,13)

하나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란민이 급증하고 있는 레바논의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공습으로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피소의 수용도 한계에 찬 이 땅을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분쟁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과 특별히 다음세대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사 인애를 베푸시는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레바논 되게 하소서.

▲ 러시아 구금 한국인 선교사, 항소에도 구금 연장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 중인 한국인 백 모 선교사의 구금 기간이 항소에도 불구하고, 11월 15일까지 연장됐다고 연합뉴스가 타스통신 등을 인용해 15일 전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시 법원은 이날 재판 전 구금 연장에 대한 백 선교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1월 15일까지 구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백 선교사는 지난 1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조사를 위해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이후 구금 기간이 거듭 연장됐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미가 3:1,8)

하나님, 러시아에서 특별한 혐의도 없이 간첩죄로 구금 중인 백 선교사님을 돌보시고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힘써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백 선교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용기로 충만케 하사 갇힌 중에도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를 알고 행해야 할 이 땅 통치자들의 그릇됨과 불의를 꾸짖어 주시고 이들을 조종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십시오.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러시아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대속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